

# 社會主義圈 변화와 學生運動의 선택

朴 亨 竣

(東亞大 社會學科)

## 1. 學生運動 위기의 背景

‘학생운동의 위기’에 대한 論議가 학생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금년 가을 각 대학의 총학생회 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학생운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였다고 한다. 학생운동의 위기에 대해서는 학생들 나름대로 다양한 진단을 내리고 있지만, 위기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 주는 현상은 국민대중의 상당 수가 학생운동의 理念과 運動의 추구방식에 흔쾌히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얼마나 심층적이고 객관적인가 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여론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言論에서도 학생운동을 보는 눈길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학생운동을 보는 사회의 시각이 이렇게 차가워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운동은 6월 민주화 항쟁을 이끌어내었을 만큼 政治的·道德的 正當性을 갖고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 몇 안 되는 강력한 對抗意見 형성세력이었다. 그런데 그후 4년 여 동안 학생운동의 位相은 크게 변화되었다. ‘운동권’이라는 별칭이 개방적이며 활력있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수용되기보다는 무언가 폐쇄적이고 관념적이며 부정적인 이미지로 수용되는 경향이

매우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이미지는 언론을 동원한 지배블록의 집요한 담화 공세에 의해 위로부터 구축된 것이기도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학생운동의 實踐이 이념적·정치적 分裂과 신중하지 못한 투쟁방법들 때문에 국민적 說得力의 약화를 자초한 탓이기도 하다. 그 질적 개혁의 수준은 차치하고라도 최근 4년 동안 한국사회는 과거 공개적 독재체제의 완만한 해체 과정을 밟아 왔고, 그에 따라 이전에 모든 사회정치적 쟁점들을 압도했던 독재-민주의 이분법적 구도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 정치적 쟁점들이 複合化·微分化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처럼 쟁점이 복합화되고 미분화될수록 각 사회세력 또는 정치세력은 추상적인 이념보다는 현실에서 生活力을 갖는 구체적인 실천들을 가지고 政治的 評價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각자가 내세운 논리와 대안들이 ‘타당성 주장(validity claim)’ 경쟁을 벌여 그러한 의사소통에서 지적·도덕적으로 우위를 차지한 집단이 가장 광범한 대중적 支持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가 벌써 이 정도로 합리화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권위주의 체제의 非合理的 要素들이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성장을 곳곳에서 억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통

“그렇다”고 대담하기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가 이러한 合理化의 過程에 들어 서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학생운동이 얼마나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최근 2~3년만을 문제로 삼는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힘들 것이다.

학생운동의 위기를 낳게 한 또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주로 학생운동이 가졌던 이념에 대한 충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학생운동의 理想的 正體性이 동요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80년대 후반 이른바 NL과 PD라는 학생운동의 조직적 분열은 한편으로는 학생운동의 구체적인 실천방법들을 둘러싼 분열이기도 하지만, 보다 추상적인 이념적 수준에서는 사회주의 이론 또는 사회주의 이행을 둘러싼 분열, 보다 직접적으로는 북한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충분한 정보나 이론적 숙고가 없는 상태에서 代案的 체제로 현실 사회주의권을 상징했던 학생운동 서클들이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현실화되는 것에 대해 크게 당혹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NL과 PD라는 논쟁의 구도 자체가 허구적인 것은 아니었는가에 대한 根本的 問題提議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충격은 ‘새로운 희망의 원리’가 과거의 희망의 원리를 대체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전자가 결여된 상태에서 후자의 해체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통이 보다 길고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학생운동의 終焉을 성급히 전망하는 일부 지식인들의 희망적인 평가는 온당치 못하다. 그것은 우리나라 학생운동의 전개과정 및 이념적 급진화의 배경, 그리고 학생운동의 자기혁신 능력에 대한 균형잡힌 분석에 의해 내려진 결론이라기보다는 상황논리에 의한 豫斷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2. '80년대 學生運動

### 理念形成 과정의 특징

우리나라 학생운동은 처음부터 특정의 이념을 표방하고 나선 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4월 혁명, 6·3 사태, 3선개헌 반대, 反유신체제 운동 등을 거치면서 그 진통이 형성되어 온 학생운동은 분명히 이데올로기 지향적이라기보다는 현존 정치체제의 反민주성에 대한 自生的 抵抗運動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反독재 민주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학생운동의 흐름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물론 일부에서 이념운동을 지향하고자 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학생운동의 主流라고는 볼 수 없고 또 비합법 전위조직을 결성하려는 움직임들은 권력기구에 곧바로 노출되어 세력을 형성할 수 없는 조건이 지속되었다.

이념적 성격이 명확치 않으면서도 현실의 모순과 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발언과 행동을 강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곳곳이 수행해 왔던 점이 오히려 학생운동의 公信力과 道德的 正當性을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했다.

학생운동의 성격을 크게 변화시킨 주요한 계기는 역시 '5·17'과 '광주항쟁'으로 상징되는 '80년 봄의 사태였다. 10·26 이후 그동안의 실천력을 바탕으로 대단히 큰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학생운동은 '80년 봄 權力과 총력전을 벌였고, 급기야 '광주의 비극'까지 맛보았지만 그 결과는 학생운동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세력의 完敗였다. 하지만 이러한 완패는 학생운동에 敗北主義를 확산시키기보다는 오히려 政治的 鬪志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80년의 실패 원인 중의 하나가 '운동의 非科學性과 無定形性'으로 지적되면서 학생운동의 이념을 명확히하려는 의지가 형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학생운동의 理想的 性格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5·17이 들어선 이후 학생운동은 지하로 침잠하면서, 학생운동의 이념적 지향과 관련하여 몇 번의 치열한 논쟁을 거치게 된다. 이른바 학림-무림사건을 비롯해 당시 학생운동 내에서는 우리 사회의 모순구조와

변혁주체 문제에 대해 科學的 認識을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큰 공감을 얻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을 맑스주의 사회과학에 의존하여 얻고자 하는 경향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종속이론을 비롯한 제3세계 문제에 대한 급진적 이론들에 큰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한국의 분단과 독재, 그리고 광주사태가 ‘종속의 구조’와 관련된다는 인식은 美문화원 사건이 상징하듯이 학생운동에서 反美 투쟁을 공공연화하도록 했다. 反美와 反獨裁가 동일한 정치적 목표로 설정된 것은 '80년대 학생운동을 그 이전과 구분 짓게 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變革主體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자 및 노동운동이 중심세력으로 나서기 전에는 한국사회의 변혁이 어렵다는 인식이 역시 폭 넓은 공감을 얻었다.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이 중심이 되는 ‘民衆’ 개념이 변혁주체로 상정되는 것이 학생운동의 변혁주체에 대한 일치된 생각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이른바 ‘위장취업’으로 알려진 ‘노동현장 投身’을 감행하고, ‘농활’과 ‘빈활’ 개념이 단순히 동정적·자선적 활동으로서가 아니라 농민운동 및 빈민운동의 組織의 活性化를 위한 支援 개념으로 자리잡은 것도 이때부터이다.

'80년대 중반부터 학생운동 내에는 두 가지 이념을 중심으로 조직적·정치적 兩分化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나는 정통 맑스-레닌주의를 이념적 기치로 하는 조직들의 형성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主思’를 이념적 기치로 하는 조직들의 형성이다. 이 두 이념은 '8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학생운동내 이념투쟁의 결과로 학생운동 지도그룹에 의해 선택된 이념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 성격 규정’(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론과 식민지 반봉건사회론), ‘변혁주체에 대한 인식’(민족 자본가 및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태도의 차이),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연방제 통일론에 대한 평가의 차이), ‘해방 이후 민족해방 운동 및 사회주의 운동의 정통성에 대한 인식’(북한에 대한 평가의 차이) 등이 戰略的 爭點으로 부각되면서 학생운동은 맑스-레닌주의를 선호하는 ‘민민투’ 계열과 主思를 선호하는 ‘자민투’ 계열로 분화되었다. 이것이 PD와 NL의 대립으로 이어졌음은 잘 알려진 사실

이다. 이러한 분화와 그에 따른 대립 및 논쟁은 학생운동의 이념을 상호 상승적으로 더욱 急進化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학생운동 출신들에 의해 그 充員 構造가 형성되었던 다른 在野 사회운동의 理想的 急進化를 동반했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이념적 급진화, 곧 정치적 급진화를 촉진했던 客觀的 要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요인은 5개의 비합리적 독재정치였다. 원래 모든 정치적 반대를 불온한 것으로 간주하는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는 理想的 兩極化가 훨씬 빨리 진행되게 마련이다. 어떤 중간적·점진적 길이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요인은 경제적 불평등 및 불공정이 개선될 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빈부격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사회구조 하에서 맑스주의적 계급갈등 모델의 설명력은 훨씬 커질 수 있다. 더욱이 '80년초 평화적인 민주정부 수립의 길이 불법적으로 차단되고, ‘광주’의 게탄스런 역사적 경향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革命的 路’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道德的 義務로 간주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읽기’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의미에서 학생운동이 급진적 이념을 채택하게 된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운동의 이념적 급진화가 가져온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가려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학생운동이 革命理念을 內部化하면서 조직력과 투쟁력이 보다 강해졌다는 점이다. 학생운동 조직에 직업적 혁명가 조직과 같은 엄한 규율을 요구하게 되고, 비타협적인 투쟁의 강도도 훨씬 강화되었다. 이러한 組織力과 鬭爭力의 강화는 학생운동이 몇몇 대학에 한정되었던 '70년대와 달리 '80년대 이후 전국 각 대학에 뿌리를 내렸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어쨌든 이러한 조직력과 투쟁력의 강화는 5개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었고, 6월항쟁과 일정한 민주화 조치를 이끌어내었던 주요한 動因으로 작용했다.

다른 하나의 효과는 학생운동의 指導力 형성에 있어 理想的 正體性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될수록 바로 그 이념적 차이로 인해 학생운동의 조

직적 분열이 심화되고, 일반 학생대중과 학생운동 주도그룹 사이의 '사고양식 및 행동유형의 격차'가 커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학생운동의 이념적 급진화가 갖는 觀念的 측면을 드러내주며, 아울러 현재의 학생운동 위기가 어디서부터 태도되었는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일반적으로 '80년대 학생운동의 부정적 양상'이라고 지적되는 서클주의와 분파주의가 형성되는 논리적 과정은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비공개적 활동에 의존해야 했던 학생운동 서클들은 대체로 이념적 同質性을 가장 중요시하게 되며, 그에 따라 내부 토론에 의해 자신들의 理念을 特定化한다. 그리고 다른 서클에 대해서는 이념적 차이를 근거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각 서클 간의 이념적 차이는 객관적으로 보면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어도 당사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논쟁 자체가 運動의 主導權을 누가 갖는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또한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틀린 노선이 주도하는 것은 결국 운동의 승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일종의 '베신'을 하고 있다는 적대적 태도를 형성시킨다). 이러한 논쟁이 그 성격상 누가 옳고 그른가를 당장 입증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서클들 간의 競爭的 構造는 약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된다. 이러한 운동권 내부의 분열과 경쟁은 知的 호기심과 사회에 대한 問題意識이 높은 학생들을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경쟁적 담화의 추상적·관념적인 성격 때문에 일반 학생들에게 생경함을 느끼게 하거나 학생운동에 거리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비단 학생들 내부에서만 아니라 학생운동에 대한 社會的 認識의 변화와 결부되어 학생운동을 둘러싼 사회심리적 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학생운동이 과잉 정치화되고 이념적으로 교조화되어 있다는 권력 측의 지속적인 이데올로기 공세가 일반 대중으로부터도 일정한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민주화 과정에서 학생운동이 담당했던 정당한 역할을 인정하는 사람들조차 학생운동의 생

경한 구호와 교조화된 논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反感을 표시하게 된 것은 그다지 오래된 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가 그러한 사회적 의식을 한층 강화시켜 주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 3. 東歐 社會主義 붕괴의

#### 理念的 충격과 學生運動의 대응

동구 변화가 일어나기 전 학생운동권의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은 사실상 백지상태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동구 사회주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제한되어 있고 또 關連의 오랜 反共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동구권 교과서들에 의존한 맑스주의 교리의 수용은 은연중에 '현실 사회주의'를 理想化하는 태도를 낳는 배경이 되었다(이점에 관한 한 많은 진보적 지식인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가 진행되면서 현실 사회주의가 갖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학생운동 내에서도 공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사실상 자신이 채택해 왔던 이념 자체에 대한 근본적 再檢討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또 학생운동이 감당하기에는 이론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생운동이 이러한 理念的 衝擊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변호론적 또는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논리에 동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예컨대 "사상이나 이론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닌데 실천이 잘못되었다"든가, "사회주의의 붕괴라기보다는 계급주의의 책략에 의한 일시적 어려움에 불과하다"는 식의 논리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오랫동안 설득력을 가질 수는 없다. 만일 이러한 自閉的 觀點을 지속한다면 학생운동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그러한 변호론적 논의 수준을 넘어서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學生運動의 危機를 사실로 직시하고 그것을 이념적 수준과 실천적 수준에서 근본적으로 제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아직 이념적 罅點들을 충

분히 다루기에는 준비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큰 문제들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당면한 구체적인 실천과 대중성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을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평가할 수 있다. 금년 하반기 학생운동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추상적인 理想的 論爭을 지양하면서 학생대중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운동 방법들의 개발에 놓여졌고, 그 결과 학생회 선거에서 큰 이변없이 예년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은 학생운동이 나름대로 '관념적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해 自己變身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색이 어떤 폭과 깊이에서 이념적 革新을 동반할 것인가는 아직 수단하기 어렵다. 이것은 단순히 학생운동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내·외 정치상황의 변화와 진보적 지식인들 내부의 이념논쟁의 추이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 4. 맺음말 : 새로운 選擇의 必要性

한국의 학생운동이 일본의 학생운동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는 예측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성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학생운동이 '80년대에 급격한 이념적 急進化를 거쳐왔지만, 그것은 어떤 이념이 실천을 덮쳐주고 주도한 과정이

있다가보다는 한국사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생들 나름의 실천 속에서 이념들이 선택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바깥에서의 이념적 충격이 곧바로 학생운동의 붕괴로 이어지는 외삽적 과정이 전개되리라 보고는 어려운 것이다. 정치적 民主化와 사회경제적 公正의 성취가 지지부진한 한 학생운동은 계속 客觀的 存在理由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여전히 강력한 문제제기 집단으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80년대의 否定的 遺産이라 할 수 있는 이념적 경직성, 분열적 경쟁구조, 지적·도덕적 설득력이 부족한 실천방법을 혁신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힘의 弱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선택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 선택의 내용이 무엇이어서 하느냐에 대해서는 필자가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지만, 적어도 목적론적·결정론적 세계관을 지양할 필요가 있고 운동의 方向도 추상적이고 큰 문제들을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작아 보이지만 한국사회의 進歩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 代案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학생운동은 정치적·경제적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성숙에 기여하는 合理的 對抗文化로서 대중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지를 시험하는 중대한 轉換期에 서 있는 셈이다. ■